

평화의 작은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5 호

4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4 월 18 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사부님의 눈물

오늘 월례회 순서

김여정 미카엘라 ofs

- 오전 10 시 -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 영상' 감상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5 월 23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금년 이태리 아씨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대회와 성지 순례 (7/25~8/9)에 자녀들(17~30 세)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경비는 CD\$3,300 all inclusive 이며, 신청 희망자는 리따 수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지원반 모집 마감일이 7 월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신자 분들에게 지원반 신청을 권유해주시고 월례회에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계희 로사리아 자매의 어머니님(최정희 데레사)께서 향년 84 세로 지난 4/6, 한국에서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정정숙(막시미아) 자매의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병세가 호전되고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 병환 중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크리스찬에게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최악이며 또한 고해성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으며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태고의 신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로키 산맥의 빙하 역시 30 년 후에는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그로 인해 해수면의 높아짐과 기온의 상승으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 등 치유될 수 없이 깊은 병에 시달리던 지구상에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있다. 전 세계 크리스찬 환경운동의 후보 성인이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 이신데 그분의 영성을 따르고자 서약한 우리 프란치스코인들이 사명의식으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현실인 것 같다. 그 동안 지나치게 좋은 것, 빠른 것, 편리한 것만을 추구해온 인류의 자업자득 이라고 해야 할까? 요즈음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열심히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뒤로 걷는 사람도 있다. 날로 파괴되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도 후퇴적인 생활 방식으로 극도의 환경 오염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몇 년 전 작은 형제회 유수일 사베리오 신부님께서 로마에서 참사관 소임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길에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방문하시고 미국 시카고로 가시기 위해 허 스테 파노 형제님께서 나이가아라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항공편으로 가지지 않고 오랜 시간 고생스러운 기차

여행을 하시느냐고 물으시니 “이런 것이 프란치스칸의 삶”이라고 대답 하셨다고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부님의 상본인, 맨발에 기워진 낡은 수도복을 입으신 사부님이 수건으로 눈물은 닦으시는 모습의 액자 앞에서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은, 사부님의 저 눈물이 지금의 나에게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성인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자연 환경의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에 안타까워 하시며 흘리시는 눈물이 아닐까? 하고 ...

인류의 건강과 병마 퇴치를 위해 몰두하는 의학계의 석학들이 인류의 식생활이 백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지구상에 현재와 같은 불치병은 자취를 감출 것 이라고 한다. 여러 분야에서 옛 것을 그리워하고 있음은 근대 문명이 쌓고 있는 바벨탑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음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칠고 더디고 불편해도 순수하고 해롭지 않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향해 뒷걸음으로 걸을 줄 아는 프란치스칸이 되어야 할까 보다. 불편함을 생활화 하는 것이 가난의 영성이며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이다.

회계 보고

2009 년 3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8,138.52	1,650.00	1,127.88	8,660.64
선교 후원금	2,492.93	1,560.00	0.00	4,052.93
도서 구입	2,524.47	260.00	0.00	2,784.47

사부님 영성의 향기 (11)

‘우리 모두 성인(聖人)이 됩시다!’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그들(작은 형제회 초기 공동체)은 누구하고나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도록 힘썼고, 신중하고 평화롭게 처신함으로써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애써 피했다. 그들은 필요한 때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생활이나 대화 중에 점잖지 못한 면이나 품위 없는 면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스럽고 부질 없는 말은 도무지 입밖에 내지 않았다. (1 켈라노 41에서 발췌)

성인(聖人)들은 우리와 한참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감히 될 생각도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은 성인이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인들의 위대한 업적들은 제쳐두고 성인(聖人)의 한자(漢字) 뜻 풀이를 보면, 거룩할 성(聖)은 耳(귀)와 口(입구) 그리고 王(임금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성인이란 “입과 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조금 의역을 가미한다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며 말을 온유하게 잘 하는 사람”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집회서(19,16)에 “사람은 가끔 악의 없이 말 실수를 하는 수가 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고 씌어있듯이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경호(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어느 사람의 영성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지?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려고 하는지? 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타당하다고 동감 하였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입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므로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꿰뚫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와 묵상으로 지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열심한 신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쉽게 화내고 말을 절제 없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부님 제자들의 초기 공동체 생활에서는 다른 형제에게 말로서 실수나 상처를 줬을 경우는 말한 사람이 상처받은 형제의 발을 자기 입에 넣도록 하는 엄한 벌칙이 있었을 정도로 말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은 완덕을 추구하는 프란치스칸으로서는 당연한 처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만 잘해도 반(半) 성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남의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이 자꾸 나오려는 악습을 고치려고 수도자들이 입에다 자갈을 넣었듯이 우리도 흉내를 내며 노력하면 성인(聖人)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